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의 변화와 신도시 주민의 거주 만족도 및 지역 정체성 인식*

이재복** · 안재섭***

Changes in the New Town of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and Residents'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Regional Identity*

Jaebok Lee** · Jaeseob Ahn***

요약 : 본 연구는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의 변화를 인구와 산업 측면에서 고찰한 것으로, 신도시 거주민들의 거주 만족도와 지역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도청 신도시 거주민들의 거주 만족도에는 경제적,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신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도시계획 요인은 거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거주민들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지리·경관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어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거주 만족도, 지역 정체성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complex new town area from the perspectives of population and industry. It empirically analyzes factors that may influence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their perception of local identity through a surve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found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residents'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s in the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complex new town. Second, cultural, social, and urban planning factors of the new town were found to have relatively little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Third, geographical and landscape factors were foun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residents' perceptions of local identity.

Key Words : Relocation of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complex, Development of new town, Satisfaction of residency, Local identity of new town

*이 연구는 2024학년도 동국대학교 서울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The work was supported by dongguk University's Seoul Research Fund of 2024).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박사(Ph. D. Graduate School of Geography, Dongguk University's Seoul, s383838@naver.com)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 Seoul, jsa@dongguk.edu)

I. 서론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지역균등발전을 목적으로 낙후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소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며, 아울러 정부 행정기관 및 도청과 같은 기관의 이전이라는 특수한 목적 달성과 중심지 이전을 위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 행정기관 이전 목적으로 건설된 대표적인 신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도청 이전에 따라 새롭게 건설된 신도시는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가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남악 신도시와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이전하면서 건설된 내포 신도시,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가 해당된다.

남악 신도시, 내포 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는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기존 중심도시가 광역시로 승격함에 따라 도청이나 도 관련 주요 공공기관을 도내의 저개발지역으로 이전하여 도 규모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청 이전 지역을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도청(道廳)은 해당 도의 전반적인 행정과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 기관으로, 도내(道內)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한다. 도청은 도내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도내의 모든 공공 행정 및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도청 이전은 도청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관할하는 교육청, 검·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 도내 공공 기관들도 함께 이전한다. 따라서 도청 이전은 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그 규모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건설된 혁신도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도청 이전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임석희, 2021).

도청 신도시 개발은 개발 필요성에 따라 세워진 목적 및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지역 간 개발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와 개발지로 선정된 지역의 경관 및 정체성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설기환 등, 2016). 특히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경관 및 지역성 훼손 문제는 본래 가지고 있던 지역적 특색이 사라지거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김교남, 2014).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로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각종 지역 개발 계획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정체성을 발굴 및 이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신도시의 성장 구심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내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

된 경우에는 도청이 관할 지역 안으로 재입지하면, 도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이재복·안재섭, 2021). 또한 도청 신도시 개발로 도의 중심성이 강화되면 도의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 통합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으며(정순오, 2013), 신도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낙후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최근 신도시의 개발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수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시 경쟁력을 고양시켜 각 분야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Lever and Turok, 1999).

본 연구에서는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거주 만족도를 분석하여 신도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과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정체성 파악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를 위해 신도시 거주민의 거주 만족도와 지역 정체성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II.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 과정과 지역 변화

1.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의 배경 및 추진 과정

경북도청이 이전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에서 도의 중심도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게 것과 연동되어 있다. 근대 시기 이후 경상북도의 제1도시는 대구시였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청은 대구시에 위치해 있었다. 1981년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하면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서 독립하게 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입지해 있던 경북도청은 경상북도가 아닌 관할 구역 밖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실제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소재 지역과 행정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되었다.

경북도청의 본격적인 이전 문제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상하게 되었다(박동진, 1994; 정현, 2001; 기정훈·구자문, 2007; 김은경, 2011). 이에 따라 1992년 경상북도의회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청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 후보지로

안동시·구미시·포항시·영천시·경주시·의성군 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도청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이전 논의가 표류하게 되었다. 이후 약 15년이 지난 2007년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8년부터 도청 이전 지역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과거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6개 시·군 지역뿐만 아니라 상주시·영주시·김천시·군위군·칠곡군·예천군까지 후보지로 신청하면서 12개 시·군의 11개 지역(안동시와 예천군이 단일 평가 대상으로 통합)으로 평가대상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경북도청의 입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북부권으로 이전이 추진되었다. 북부권으로 이전해야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경상북도 남부에 비해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경북 북부에 도청을 이전시킴으로써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최성관·이운숙, 2013). 경북도청 이전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청 이전 후보지 평가 지표로는 균형성·성장성·중심성·친환경성·경제성 등을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최종 결과는 안동시·예천군 지역이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도청 이전 예정지로 결정되었다(경상북도, 2010).

구체적인 도청 예정 지역은 행정구역 상 경북 안동시 풍

천면과 예천군 호평면 지역으로 면적 11km²에 달한다(그림 1). 도청 예정 지역에는 경북도청을 포함한 각종 지방행정기관이 입지하며 거주 인구가 10만 명으로 예정된 신도시를 건설할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의 단계별 조성 계획(표 2)과 단계별 계획도(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도시 건설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 1단계(2010~2015년)는 도청 신도시의 행정 타운을 조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수용 인구는 계획상 2만 5천여 명으로 계획되어 있다. 2단계(2015~2024년)는 도시 활성화 시기로 계획 인구는 4만 5천여 명이다. 3단계(2024~2027년)는 신도시 완성 시기로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다. 이 시기의 수용 인구는 2만 9천 여 명이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행정기능·산업·교육이 어우러진 자족적 신도시 건설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지역 전통과 특성 기반의 지역 정체성을 경쟁력으로 미래의 글로벌 신도시로 건설이다. 세 번째 목표는 도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신도시 건설로 저탄소 녹색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경상북도, 2010). 구체적으로 경북도청 신도시가 자족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기능 외에 산업 기능·교육 기능·관광 레저 기능 등 유기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

표 1. 경북도청 이전 추진 과정

1966. 04. 01	대구 중구 포정동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으로 경부도청 이전
1981. 07. 01	대구광역시 승격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 발생
1992. 04. 03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 구성 등 도청이전 추진
1995. 05. 03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 수정안 의결, 6개 후보지 집행부 송부
2006. 06. 27	민선 4기 도지사 도청이전 공약 발표
2007. 03. 02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정·공포
2008. 03. 2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회 제정·공포
05. 23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선정(12개 시·군 11개 후보지)
06. 09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안동시·예천군 일원)
10. 02	경상북도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제정(안동시·예천군 일원)
2009. 03. 09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02. 01	도청이전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04. 29	사업시행자 지정(경상북도개발공사)
05. 04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2011. 04. 2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5. 05. 27	신청사 공사 준공
2016. 03. 10	안동시 풍천면 현 신청사로 이전 개청

출처 : 경상북도, 2011:7; 김은경, 2011.



그림 1. 경북도청 위치도

출처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s://gb.go.kr>.

표 2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단계별 조성계획

구분	사업 기간(년도)	개발 목표 및 방향
1단계	2010년~ 2015년	행정 타운 조성 - 개발 면적: 4,258km ² - 수용 인구: 25,500명 - 행정 타운, 주거용지, 한옥형 호텔 기반시설
2단계	2015년~ 2024년	도시 활성화 - 개발 면적: 5,547km ² - 수용 인구: 45,100명
3단계	2024년~ 2027년	신도시 완성 - 개발 면적: 1,161km ² - 수용 인구: 29,400명 - 산업 R&D, 특성화 대학, 업무시설 등

출처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s://gb.go.kr>; 경상도청 신도시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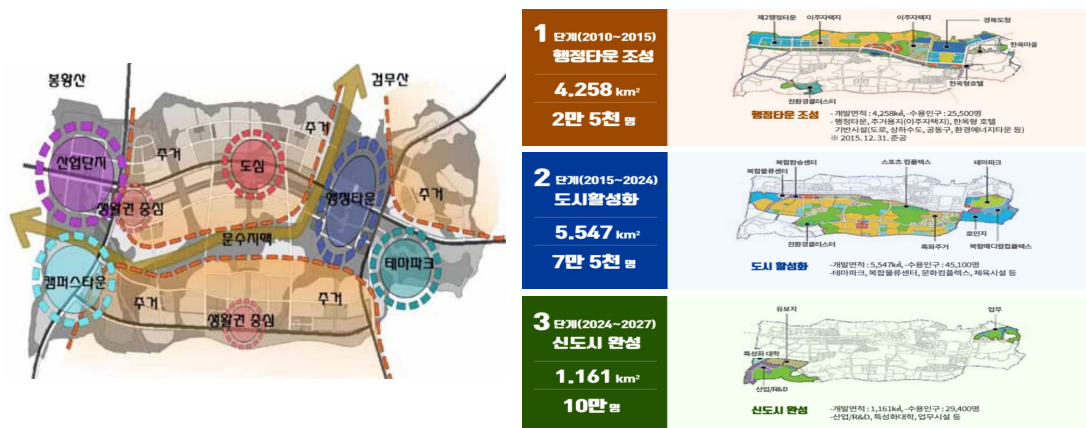


그림 2 경북도청 신도시 단계별 계획도

출처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s://gb.go.kr>.

하며,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복합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며, 경북 내륙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이미지와 역사성, 유교 문화의 본고장 등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도록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이후의 지역 변화

1) 인구 변화

경북도청 신도시가 입지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은 2016년 도청이 이전한 이후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계획했던 인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구는 도청 이전 첫해인 2016년 9,68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28,014명이며, 세대는 9,614세대이다. 2023년 현재의 인구는 현신도시 1단계(2010년~2015년) 계획 인구인 2만 5천 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 3).

경북도청 신도시의 계획은 인구 약 10만 명으로 하고 있으며,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인구의 약 50%는 도청 등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로 추정했다. 경상북도의 분석에 따르면 경북도청, 유관기관, 관련 지원 산업을 기준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근무 인력에 따른 직·간접 유발 인구는 도청 종사자 및 부양가족 약 3,000명, 유관기관 종사자 및 부양가족 약 12,000명, 관련 산업 종사자 및 부양가족 30,000명 등 약 45,000명 이상이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해 유발되는 인구로 추정했다(경상북도, 2011).

현재 신도시 개발 3단계(2024년~2027년)에 들어 선 시점에서 도청 유관행정기구의 이전도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흡인 요인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경북도청 신도시의 목표 인구인 10만 명을 달성하는 데는 힘들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도청 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인근 시·군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쇠퇴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권용석, 2016; 임석희, 2021).

2) 지역 경제적 변화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경북도청의 이전은 경북의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유발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업 관련 생산 유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특히 교육 및 보건업,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부가가치 유발 측면에서는 교육 및 보건업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며, 고용 유발 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업, 교육 및 보건업,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전경구 등, 2013).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도청 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유치와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에 바이오 일반 산업단지와 예천군 제3농공단지가 도청 신도시 인근에 입지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조성은 지역 내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행정 서비스업과 소매업 위주의 도청 이전 신도시가 갖는 산업 구조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경북도청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역 중심성 변화

경북도청의 이전은 경북 북부권의 침체된 지역 발전을 불러일으켜 경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이전에는 경북 북부권(안동시·예천군 중심)은 중부권(구미시 중심), 남부권(포항시·경주시 중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 수준이 낮은 상태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 북부권에 도청 신도시를 입지시킴으로써 경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경상북도의 경제 발전 축을 고르게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최성관·이윤숙, 2013)

표 3.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 변화(2015년~2023년)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안동시 풍천면	4,103	4,657	4,825	5,068	5,193	6,702	7,012	7,097	7,174
예천군 호명면	2,669	5,023	9,401	14,863	17,714	19,193	19,948	20,550	20,840
계	6,118	6,673	6,842	7,086	7,212	8,722	9,033	9,119	9,197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경북도청 신도시에 입주가 예정된 기관은 총 107개에 달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78개 기관이 입주 완료하였다. 나머지 기관은 신도시 개발 사업 2단계가 완료되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의 107개 기관이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되면 경북 북부지역에 행정 중심지가 만들어 지는 것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국토 개발 전반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발전의 흐름이 ‘추풍령’에 가로막혀 경북지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경북도청 신도시에 도청 및 유관기관이 입지하게 되면서 국토의 중앙에 행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권용석, 2016).

경북도청 신도시가 만들어 지면서 과거 대구·구미·경주·포항으로 이어지는 경북 중부·남부권에 치우친 지역 발전이 북부권에 새로운 경북 지역 발전 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토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경북도청 신도시는 정체성과 역사성, 상징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면서 도민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의 도시 명으로 명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북도청 신도시 이전 초기 동천·예안·퇴계 신도시 등으로 명칭이 공모되었지만 확정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도 명칭을 제정하여 사용한다면 도내외적으로 정체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거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및 지역 정체성 인식에 관한 분석

1. 연구 설계 및 설문 응답자 분석

본 연구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로 인한 거주자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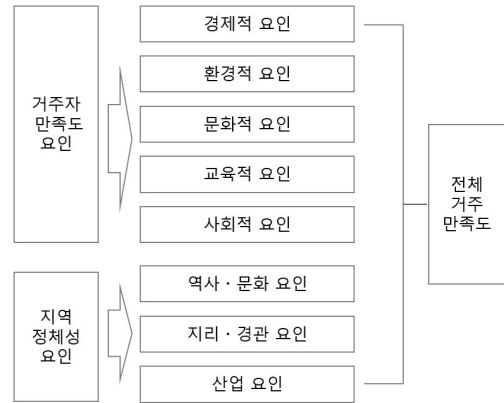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모형

족도 요인을 분석하여 실제 거주민들의 거주지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지역 정체성 요인이 거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도청 이전 신도시의 지역 정체성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그림 3).

신도시 거주자의 거주 만족도 및 지역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설문조사는 206부이며, 신도시 거주 만족도, 지역 정체성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설문 문항은 신도시 거주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 거주 만족도, 지역 정체성 부분으로 구분했다(표 4).

거주 만족도는 이상훈(2019), 김호상(2019), 김재영·박재홍(2018)의 거주 만족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거주 만족도로 사용한 요인은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도시계획적 요인으로 그룹화 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요인은 고용과 일자리, 주거 부담 수준, 주거의 미래 가치 등으로, 환경적 요인은 자연환경과의 조화성, 생활의 쾌적성, 거주 환경의 적합성으로, 문화적 요인은 문화 생활

표 4. 설문지 구성

변인		문항 수	참고 연구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월평균 소득, 직업, 거주 유형, 세대원 수, 거주기간, 장기 거주 희망 여부, 거주지 추천 여부	11	문현승 등(2018)의 인구학적 특성을 수정·보완하여 구성.
거주자 만족도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교육적 요인, 도시계획 요인, 전반적 요인	19	이상훈(2019), 김호상(2019), 김재영·박재홍(2018)의 거주자 만족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
지역 정체성 인식	역사·문화 요인, 지리·경관 요인, 산업 요인	9	최원희(2016)의 지역 정체성 내용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

의 양호함, 문화 시설의 만족, 문화 시설의 접근성으로, 교육적 요인은 공공 교육 기관의 구비성, 공공 교육 기관의 접근성, 사설 교육 기관의 접근성으로, 사회적 요인은 주민 간의 소통 정도, 주민간의 유대 관계, 지역 공동체 활동 정도 등으로, 도시계획적 요인은 공공 시설의 배치와 디자인, 가로망 등 도시 계획 등으로 각각 세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표 5).

지역 정체성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 지역에 대해 가지는 고유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종종 사람들이 속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연관이 깊으며,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역의 역사, 문화, 언어, 관행 등과 관련된 것일 수 있으며, 그들이 속한 지역과 그 지역의 특징을 자부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 정체성 인식에 관한 요인은 최원희(2016)의 지역 정체성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역사·문화 요인, 지리·경관 요인, 산업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6). 역사·문화 요인은 유명한 인물

이나 유적 등 역사적 전통, 문화 행사 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세분하였으며, 지리·경관 요인은 행정적·기능적 공간 배치, 도시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도시 경관의 안정성 등으로, 산업 요인은 도시 내 제조업, 단순 소비자 서비스업, 교육, 행정 및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평가 빈도가 높은 변수들이 전체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비슷한 속성으로 묶어 구성하였다. 거주 만족도와 지역 정체성 인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긍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자가 구성한 지역 정체성 인식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2. 가설 설정

경북도청 신도시의 거주자 만족도 요인과 거주 만족도에 관한 가설, 지역 정체성과 거주 만족도에 관한 가설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5. 거주 만족도의 세부 요인 및 항목

요인	항목	요인	항목
경제적 요인	고용 및 일자리	교육적 요인	공공 교육 기관의 구비성
	주거 부담 수준		공공 교육 기관의 접근성
	주거의 미래 가치		사설 교육 기관의 접근성
환경적 요인	자연환경과의 조화성	사회적 요인	주민 간의 소통 정도
	생활의 쾌적성		주민 간 유대 관계
	거주 환경의 적합성		지역 공동체 활동 정도
문화적 요인	문화 생활의 양호함	도시계획적 요인	공공 시설의 배치
	문화 시설의 만족		공공 시설의 디자인
	문화 시설의 접근성		가로망 등 도시 계획

표 6.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 요인

구분	설문 항목
역사·문화 요인	도시의 유명 인물이나 유적의 유무
	도시의 다양한 문화 행사의 유무
	도시 특색을 반영한 역사·문화 행사의 유무
지리·경관 요인	도시의 행정적·기능적 공간 배치의 적절성 정도
	도시의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정도
	도시 경관의 안정성 정도
산업 요인	도시 제조업의 발달 정도
	도시 소비자 서비스업의 발달 정도
	도시 내 교육, 행정 및 기타 서비스업의 발달 정도

표 7. 연구 가설

<가설 1>

- 경북도청 신도시 거주자 만족도는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1-1 경북도청 신도시 경제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1-2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1-3 경북도청 신도시 문화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1-4 경북도청 신도시 교육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1-5 경북도청 신도시 사회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1-6 경북도청 신도시 도시계획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 정체성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2-1 경북도청 신도시 역사·문화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2-2 경북도청 신도시 지리·경관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2-3 경북도청 신도시 산업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분석 방법

설문 결과의 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파악과 타당도 입증을 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신도시 지역의 주거 만족, 지역 정체성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과 ANOVA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신도시 지역의 주거 만족, 지역 정체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주거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다섯 단계를 거쳐 설문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도구는 SPSS 22를 활용하였다.

4. 설문 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수는 206명 사례이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30~40대, 대졸 학력이상,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주부이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며 대부분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과 자기 거주 희망

측면에서는 신도시로 새롭게 조성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 기간이 길지 않지만 앞으로 거주 희망에서는 67.9%가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표 8). 다만 설문 조사에서 성별의 균형이 맞지 않은 점은 연구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5.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과 타당성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거주 만족도의 Cronbach's α 는 하위 요인에서 .791~.877까지 범위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정체성의 Cronbach's α 는 하위 요인에서 .892~.936까지 범위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표 9).

6.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의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산 팽창지수인 VIF(Variance Inflated Factor)를 산출한 결과 모두 10에 미만으로 다중 공선성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주 만족도 회귀 모형의 결정 계수는 3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15.371$, $p < .001$). 영향이 있는 요인을 확인해 볼 때 경제적 요인($\beta = .340$, $p < .001$), 환경적 요인($\beta = .218$, $p < .01$), 문화적 요인($\beta = -.211$, $p < .05$), 교육적 요인($\beta = .334$, $p < .05$)

표 8. 설문 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55	26.7	거주 유형	자가	131	63.6
	여자	151	73.3		전·월세	61	29.6
연령	30세 미만	19	9.2		기타	14	6.8
	30-39세	84	40.8	거주 기간	1년 미만	18	8.7
	40-49세	79	38.3		1-3년 미만	50	24.3
	50-59세	15	7.3		3-5년 미만	68	33.0
	60세 이상	9	4.4		5-10년 미만	44	21.4
					10년 이상	26	12.6
최종 학력	고졸이하	35	20.9	장기 거주 희망	별로 희망하지 않는다.	16	7.8
	전문대졸	77	23.8		보통이다.	50	24.3
	대졸	65	46.6		약간 희망한다.	87	42.2
월평균 소득	대학원 이상	29	8.7		매우 희망한다.	53	25.7
	200만원 미만	35	17.0	타인 추천 정도	추천 의향 전혀 없다.	1	0.5
	200-400만원	77	37.4		추천 의향 별로 없다.	16	7.8
	400-600만원	65	31.6		보통이다.	60	29.1
	600만원 이상	29	14.1		추천 의향 약간 있다.	94	45.6
직업	학생	12	5.8		추천 의향 아주 많다.	35	17.0
	주부	66	32.0	신도시 선정에 풍수적 영향	전혀 그렇지 않다.	11	5.3
	회사원	49	23.8		그렇지 않다.	48	23.3
	공무원	28	13.6		보통이다.	78	37.9
	사업자	19	9.2		그렇다.	59	28.6
	기타	32	15.5		매우 그렇다.	10	4.9

표 9.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

요인		Cronbach's α
거주 만족도	경제적 요인	.791
	환경적 요인	.877
	문화적 요인	.800
	교육적 요인	.860
	사회적 요인	.856
	도시 계획 요인	.848
지역 정체성	역사·문화 요인	.904
	지리·경관 요인	.896
	산업 요인	.892

.001)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거주 만족도 회귀 모형의 결정 계수는 15.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9.104, p < .001$). 영향이 있는 요인을 확인해 볼 때 지리·경관 요인($\beta = .431, p < .001$)은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 요인($\beta = -.282, p < .01$), 역사·문화 요인($\beta = -.091, p <$

.05)은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분석한 결과로는 경북도청 거주민의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환경적, 교육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은 신도시 개발의 기본이 조건이다. 과거 농촌 지역이었던 곳에 도청과 유관 행정기관이 입지하게 되고 새롭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표 10.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VIF	기타
	B	표준오차	베타			
경제적 요인	.443	.108	.340	4.104***	2.000	R ² = .317 Adj. R ² = .296 F = 15.371 p < .001
환경적 요인	.274	.098	.218	2.788**	1.777	
문화적 요인	-.244	.108	-.218	-2.250*	2.569	
교육적 요인	.347	.086	.334	4.053***	1.974	
사회적 요인	-.143	.109	-.117	-1.316	2.288	
도시계획 요인	.039	.114	.0330	.344	2.634	

* p < .05, **p < .01, ***p < .001

표 11.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역 정체성 요인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VIF	기타
	B	표준오차	베타			
역사·문화 요인	-1.01	.122	-.091	-.830	2.855	R ² = .153 Adj. R ² = .137 F = 9.104 p < .001
지리·경관 요인	.497	.140	.431	3.544***	3.504	
산업 요인	-.308	.109	-.282	-2.829**	2.359	

* p < .05, **p < .01, ***p < .001

적으로 안정된 일자리(행정기관 등) 등의 고용이 창출됨에 따라 긍정적인 거주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적 요인은 도시 건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인공적인 건축물을 새로 짓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지만, 거주민들은 신도시 구조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환경의 쾌적성과 거주환경의 적합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경북도청 신도시가 도시 계획에서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정책이 거주민들에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적 요인은 교육 시설이나 여건의 미비나 부실로 인해 거주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북도청 신도시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되어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도시계획적 요인은 거주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은 문화 생활의 양호함, 문화 시설의 구비와 접근성으로 세분하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만족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문화 시설 및 인프라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보인다. 사회적 요인은 정책적 개입 측면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한 유대 관계나 공동체 활동 정도를 지표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신도시 특성이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도시계획적 요인은 도시 개발 계획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불충분하고 만족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에 부정적인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정체성이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리·경관 요인만 정(+)으로 나타났으며, 역사·문화 요인과 산업 요인은 부(-)로 나타났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거주민은 지리·경관적 요인으로 행정적·기능적 공간 배치, 도시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도시 경관의 안정성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신도시의 지리·경관 요인은 신도시의 거주 만족도 요인 중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신도시의 거주 환경이 그 신도시만의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내며, 그 지역 정체성은 거주민의 만족도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문화적 요인에 있어서는 역사적 공간이나 문화재 등이 없으며 문화 시설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산업 요인 측면에서도 아직 신도시에는 다양한 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2.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 1-1 경북도청 신도시 경제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1-2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1-3 경북도청 신도시 문화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1-4 경북도청 신도시 교육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1-5 경북도청 신도시 사회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1-6 경북도청 신도시 도시계획적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판정> 지지 지지 기각 지지 기각 기각
<가설 2> 2-1 경북도청 신도시 역사·문화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2 경북도청 신도시 지리·경관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3 경북도청 신도시 산업 요인은 전체 거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지지 기각

IV. 결론

경북도청 신도시는 기존 도청 소재지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면서 도청 소재지와 관할 지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행정상 적합한 도청 서비스 제공과 도내 낙후 지역 개발이라는 목적 아래 도청이 이전되면서 새롭게 발전하게 된 곳이다. 신도시의 현재 거주 인구는 목표 인구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 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입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도시 건설의 최종 단계가 완성되면 신도시 내 대학 및 산업체가 입지하게 되는데, 향후 도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새로운 거점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경북도청 신도시 거주민들의 거주 만족도와 지역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환경적, 교육적 요인이 거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과거 농촌 지역이었던 곳이 도청과 유관 행정기관이 입지하게 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일자리(행정기관 등) 등의 고용이 발생한 측면과 친환경적인 도시 건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 그리고 교육 시설의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도시 계획 요인은 거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적, 사회적 요인은 개인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만들어 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신

도시의 경우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도시 계획 요인은 신도시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정체성이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리·경관 요인이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도시의 지리·경관 요인은 신도시의 거주 만족도 요인 중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신도시의 거주 환경이 그 신도시만의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내며, 그 지역 정체성은 거주민의 만족도로 이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신도시 거주민들의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 성장을 촉진시키는 전략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도청 소재의 신도시가 아닌 지역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추후에 신도시 거주 인구에 관한 상세한 부분과 도청 행정 서비스의 영향력 등에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 2010,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기본계획 본보고서.
- 경상북도, 2011,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보고서.
- 권용석, 2016, “경북도청 이전, 새로운 국토 발전축을 꿈꾸다.” 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제 408호, 15-16.

- 기정훈·구자문, 2007, “경상북도 도청이전의 최적입지 분석에 관한 연구: ArcGIS의 중첩분석 및 접근성 분석 기법의 응용,” *한국행정학보*, 41(1), 335-356.
- 김교남, 2014,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제외 지역의 지가 변동추세 분석 - 내포신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11,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재영·박재홍, 2018, “노후 택지개발지구 거주자 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6(2), 47-66.
- 김정호, 2008, “경북혁신도시의 도시 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0(1), 21-35.
- 김호상, 2019, “신도시 인접지역 주민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탄 1신도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현승·송수익·신화철, 2018, “전주시 신도시·원도심 주거만족도 비교 분석 연구,” *지역사회논문집*, 43(1), 55-68.
- 박동진, 1994,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한 지방행정 중심지 선정: 도청이전지 선정 문제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논문집*, 16, 21-30.
- 배영동, 2010, “경북도청 이전지역의 풍수지리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15, 81~129.
- 설기환·박명혜·유석호, 2016, “지역신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한 축제의 역할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내포신도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5), 411-420.
- 손승호, 2017, “공간상호작용을 통해 본 신도시의 자족성과 지배-종속 관계의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73-85.
- 손용원, 2009, “경상북도 도청 이전 예정지의 풍수지리학적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성조·김주석, 2016,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따른 시군간 공간구조 변화-시군간 군집구조와 도청 신도시 영향력의 경우,” *한국자치행정학보*, 30(1), 253-266.
- 이상훈, 2019, “신도시주의 시각에서 주거만족도에 대한 요인 분석: 송도 자유경제구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복·안재섭, 2020, “충남남도 내포신도시의 개발과 지역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9(3), 519-531.
- 이재복·안재섭, 2021, “남악신도시 사례를 통한 도청 이전(移轉) 신도시 개발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07-118.
- 임석희, 2021, “경북도청의 이전 효과 분석: 신도청 인접시·군의 인구이동과 통근통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2), 125-143.
- 전경구·김은경·조덕호, 2013,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2), 246-258.
- 정순오, 2013,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 생활권 조성-내포신도시 조성 전망과 주변지역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 89-112.
- 정현, 2001, “도청입지 기준의 설정 및 파급효과 분석: 경상북도 도청을 중심으로,” *경주연구*, 10, 93-124.
- 최성관·이윤숙, 2013, “경북도청 이전과 북부지역의 연계발전 방안,” 2013 안동 지역 발전 세미나, *한국은행*.
- 최원희, 2017,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6(2), 215-253.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Y: Perseus Books Group.
-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Comedia, Earthscan Ltd.
- Lever, W.F. and Turok, I., 1999, Competitive cities: introduction to the review, *Urban Studies*, 36(5-6), 791-793.
- 경북일보, 2018년 8월 1일자, “도청 이전 약인가? 독인가?”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s://gb.go.kr>
- 국토교통부, 신도시 개념 및 건설 현황,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
- 교신 : 안재섭,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jsa@dongguk.edu)
- Correspondence: Jaeseob Ahn, 04620,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Email: jsa@dongguk.edu)

투고접수일: 2024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2024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2일